데스크 시각

도전과 응전

홍 행 기
경제부장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 Toynbee, 1889~1975)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조망한 역작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전세계 26개 문명의 역사를 한 마디로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려 27년여에 걸쳐 완성한 이 저서에서 토인비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한다."라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민족과 문명은 소멸했다. 또, 도전이나 응전이 없었던 민족과 문명도 안일에 빠져 사라져버렸다."라고 성찰하고 있다.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따라 문명과 민족,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는 토인비의 독창적인 문명사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고 있다.

토인비의 말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도전은 한 국가와 민족, 사회를 크든 작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켜 왔다. 특히, 우리 민족은 역동적(dynamic) 민족성을 지니고 있기에 도전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전을 불러왔다.

정보화시대 가공할 폭발력

멀리 가지 않더라도,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가렴주구에 응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엔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훗날 항일의병항쟁과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됨으로써 조선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광주를 타지역과 차별화해주는 5·18광주민중항쟁 역시 민주화를 말살하려는 폭압적인 군사정권의 도전에 대한 강력한 응전이었다. 비록 당시에는 군홧발에 짓밟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35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의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린 역사적 항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물론, 무엇이 도전이고 어떤 것이 응전인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측이나 보는 측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도전과 응전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어느 곳에서나 있어왔으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 일본, 미국의 내정 간섭 등 외부의 끊임없는 도전은 잠시 제쳐놓고 시선을 내부로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정보를 움켜쥔 '가진 자'와 빈곤과 소외, 좌절에 시달리는 '못 가진 자' 간의 갈등이 바로 그 도전이다.

물론 이 같은 도전은 인류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긴 하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또다시 그 '진부한' 도전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보화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화해·사죄는 가진 자들부터

지금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 그대로 온 국민이, 한 순간에, 똑같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특이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에너지가 한 순간에 특정 이슈에 집중되면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력은 국가의 제도나 입법·사법 장치마저도 뒤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파동, 그리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야 정치권력 그리고 재벌 등 이른바 '갑'에 대한 '을'의 민심 이반은 심각한 상태다. 정치권이 앞장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고민한다고 발표하고, 검찰이 나서 비행기 회항을 지시한 재벌집 딸 자식을 구속기소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성 그리고 결집된 여론의 폭발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터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수천, 수만 건의 비난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을'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고 또 결집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민심 이반'이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들의 도전인지, 아니면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한 못 가진자들의 응전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바다. 하지만 지금, 누가 먼저 화해와 사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지는 분명해보인다.

손에 쥔 권력과 재산을 믿고 민심을 거스르려는 개인, 집단, 권력은 모두 파멸했다. 지금 잠시 누리는 그 권력, 그 재산이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비롯됐는지는 불 보듯 명확하기에.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드라마에서 느끼는 가족사랑

강 대 석
남도향토문학 연구원장

요즘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42%를 넘기며 날로 인기라고 한다. 시청률로만 따지면 같은 시간대에 켜져 있는 TV의 절반 가까이가 이 드라마 채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흥미 위주의 막장 드라마가 넘쳐나는 안방극장에서 순수 가족드라마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 또한 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의 주요내용은 마누라 없이 3남매만을 바라보며 '자식 바보' 로 살아온 한 아버지가 철없고 이기적인 자식들을 고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불효소송'을 제기하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암 선고를 받으면서 전개되는 한집안의 가정사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가족드라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서로 다투고 화해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애가 깊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새삼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와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족이며 그 안에서 평생을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대가족제도로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1~2인 가구의 소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1인가구 수는 2010년 414만 가구(23.6%)에서 올해는 500만 가구(27.1%)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나 홀로 가구인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4인이었는데 이제는 1인가구가 4인 가구의 2배를 넘는다고 하니 금석지감이다.

소핵가족화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과거 대가족 체제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어려움은 가족 내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했지만 소핵가족체제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복지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눈여겨 볼 문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구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빈곤율(51.4%)은 4인가구(8.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기서 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전체가구의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로 비정규직, 이혼, 조기퇴직, 독거노인 등 1인가구의 특성상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 싱글이든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아팠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고독사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도 1인가구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종자료와 현 실태를 감안해 보면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핵가족체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통적 가족관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 서로 부대끼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울고 웃는 가운데 가족애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일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핵가족화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국가란 결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사회양극화가 없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고루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모름을 마음껏 허용하는 교육을 하자

김 영 록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사도의 길을 38년 걸어오면서 나날이 젊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 즐거움이 늘 필자의 가슴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선생이라는 천직에서 가르침이, 또 다른 배움이 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교단에서 배운 소중한 체험은 교육행정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38년, 학생들과 더불어 성장하면서 품어왔던 과제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교육적인가? 라는 것이다.

이 두 질문은 필자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과업이었다. 그리고 찾은 해답은 '학교문화혁신'이다. 학교문화혁신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 현장의 자발적 운동으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문화혁신을 위해 교육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소통과 공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집단사고를 통한 많은 교육적 노력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학교 현장 실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서와 미디어 교육, 확산과 수렴적 사고가 가능한 통합교과 교육, 다름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슬로건인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에도 학교문화혁신은 잘 드러나 있다. 학교문화혁신은 수업방법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수업, 협력수업, 참여학습 등 재미있고 흥미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변화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학생은 모르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학교가 될 것이다. 교단은 보람으로, 학생은 배우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모름을 마음껏 허용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리라 믿는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흔들리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공감과 위로를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교육을 교육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은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의 몫이고, 함께 해야 한다.

국가를 이끌 귀한 인재를 기르는 광주 교사들의 열정과 긍지, 자부심에 찬사를 보낸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듯, 교단에서 '진정한 사도'를 '실천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 광주교육은 항상 밝다.

체온 3도 올리는 내복으로 겨울 추위 이겨내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면 겨울철 추위의 여파는 마음까지 더 추워지게 만드는 느낌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날일수록 난방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난방비의 부담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부담이지만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난방 대신 옷을 두껍게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복입기 생활화이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일수록 내복이 더 잘 팔린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내복의 다양한 효과 때문이다.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3도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 전 국민이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3도 가량 낮출 수 있어 연간 약 8000여 억원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경제효과다. 게다가 과거 내복은 단순히 보온성만을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콩이나 황토, 녹차 등 천연재료를 함유시킨 섬유를 사용해 기능성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대상층이 다양해 지고 있다.

그런데 내복에 대한 기능을 잘 알면서도 입지 않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멋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복을 입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가 탁월한 안전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겨울철에 내복을 입으면 체온유지는 물론 난방비 절감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최경환·광주 서구 치평동

社 說

정부, 유독 광주U대회만 무관심해서야

정부의 연이은 호남 홀대 정책에 지역민들은 참담하다.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통과를 막고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강행하려 하는가 하면 개막이 코앞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U대회는 전세계에서 선수 및 임원단만 2만여 명이 참가하는 호남권 최초의 대형 국제행사로 개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자치구, U대회 조직위는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준비를 실전 중심으로 전환,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5만여 명의 시민서포터즈가 봉사 준비를 마치는 등 시민들까지 나서 축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U대회는 올림픽과 같은 규모로 아시안게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도 지원 예산은 인천아시안게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초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국무총리 주재 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인천에서 정부합동지원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 사업비의 33%인 7000억 원의 예산 지원과 정부 부처 등 15개 기관의 인적 지원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나 광주를 방문했으면서도 광주U대회와 관련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도 3~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직접 살피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지원책 마련에 나서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U대회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다. 지금까지 U대회 중 규모가 가장 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시안게임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이상은 못하더라도 그만큼은 지원해야 한다. 다른 대회는 챙기면서 U대회만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차별이다.

광주·전남발전硏 통합 표류 장기화 안 된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 조례가 각각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지만, 시·도의회가 지난달 말과 이번 주에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도의회는 현재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조사와 의원들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회에선 또 연구원을 통합했다가 차후에 새 단체장이 분리를 추진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애초 예정했던 통합 시점이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긴데다 시·도의회가 공청회·토론회 등 검증기간을 거칠 경우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후유증도 우려된다. 연구원 통합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발족시킨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자칫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 상생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남발전연구원은 통합작업에 대비해 지난달 24일까지인 원장의 임기를 '통합 때까지'로 연장했으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조직 운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두 연구원의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 특수성이나 정책 목표가 달라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한 뿌리였던 데다 산업별로 보완 내지 집중을 할 경우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별도의 기관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도의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전제로 '강소연구원'을 만드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통령 회고록

인간에겐 누구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 수컷들이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하듯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어찌보면 본능일지 모른다.

보통사람이 이러할진대 최고 권력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연유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회고록을 많이 냈다.

대통령 회고록 가운데 최고는 윈스턴 처칠 영국수상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48년부터 장장 6년에 걸쳐 쓸 정도로 공력을 들였다. 본인의 기억뿐만아니라 각종 문서와 사서를 접목시켜 서술한 탓에 사료적 가치도 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솔직하고 담담하게 진실을 기록해 다른 사람들이 쓴 그의 전기(傳記)와 사실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통령 회고록은 역사적 진실보다는 자기 변명이나 미화로 일관해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세를 먼저 받았지만 강연으로 돈벌기에 바빠 마감일이 다가오자 전문작가를 고용해 급하게 출간했다. 내용이 부실했고 진실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독자가 아닌 자기 자신과 자신을 어여삐 봐줄 먼 훗날 역사 기록자를 위해 주절대는 한 남자의 소리일 뿐이다"고 혹평했다.

우리나라에선 10명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6명이 회고록을 냈다. 퇴임 후 18년만에 회고록을 낸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김영삼 민자당 후보에게 30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은 감추고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척결 등 치적을 과대하게 포장했다가 비난을 샀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고백해 1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 말들이 많다. 대체적으로 자기 반성보다는 치적 알리기에 치우쳤다는 평가다.

조지 오웰은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금 되새겨 볼 일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